



충북 개신농장
괴산 대표

이윤구

고객홍보처



청년농부 시작, 양돈사업은 나의 인생!

충북 괴산의 시골마을에서 개신농장의 대표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 40대 축산명인 이윤구 대표. 이 대표는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도드람양돈에서 2년 7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양돈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30대의 청년농부로 축산인의 길에 들어선 이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끊임없는 도전을 무기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양돈사업 경력 13년차의 베테랑 이윤구 대표의 축산경영을 둘러보았다.



06:00

후보돈 보유와 교체시기가 중점

농업에서 최고의 산업이 양돈이다. 특히 젊은 일꾼들이 일하기에 최고의 산업이 바로 양돈이라며 양돈사업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개신농장의 이윤구 대표. 그의 아침은 늘 활기차게 시작된다. 어느 농장이든 비슷한 풍경이지만 가장 먼저 모돈사의 사료급이를 준다. 양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종돈을 구입하거나 유지하여 적절한 모돈관리와 정확한 교배적기를 파악하여 임신율과 산자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표는 모돈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개신농장에서는 랜드레이셔와 요크셔를 듀록과 교배한 삼원교잡종 품종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에게 축산노하우를 물으니 “후보돈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는 후보돈을 자체선발하고 있습니다. 후보돈이 여유가 있어서 모돈 교체가 빠르게 저만의 비법입니다.”



11:00

기본에 충실한 관리로...

양돈은 기본에 충실한 관리가 중요하다. 개신농장은 넉넉한 사육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2m²당 1마리의 사육공간으로 돼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또 돼지이동이 편리하도록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동로를 만들어 모돈사,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 순으로 동선을 간결하게 하여 출하 시 편리하도록 축사를 설계하였다. 이처럼 그는 시설투자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편이다. 13년째 양돈사업을 해오는 이 대표에게도 양돈인생에 힘겨웠던 순간들이 있다. 2011년 당시, 전국적으로 구제역 비상이 걸리면서 개신농장도 구제역을 피해가지 못했다. 잘 키우고 있던 돼지들을 매몰해야하는 아픔은 상상을 초월했다. 초창기, 기술이 없어 온도에 민감한 돼지들에게 신선함이 좋은 줄만 알고 환기를 너무 자주 시켜 수많은 돼지들을 폐사시킨 경험도 있다. 이런 시행착오가 밑거름이 되어 지금의 개신농장을 만들 수 있었다.



17:00

생균제로 소화 흡수율 개선

그는 돼지의 성장단계에 따라 환경, 시설, 사료, 질병, 사양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의 돈사는 친환경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료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주로 생균제를 사용하고 있다. 생균제는 소화 흡수율을 개선하여 돼지특유의 냄새를 잡아준다. 그는 돼지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백신접종 등을 확인하며 질병관리에 힘쓰고 있다.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해오고 있는 이 대표는 “양돈사업은 투자대비 수익률이 좋은 사업이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며 미래의 양돈경영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 같은 컨설팅을 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양돈사업은 본인의 적성에도 잘 맞고 비전 있는 사업이라는 그는 현재 1,500두를 사육하며 꾸준히 사육두수 5,000두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도전에 힘쓰고 있다. 